

3

백로주 암각문

조사경위

그동안 백로주 지역 암각문의 일부는 알려져 왔으나, 정확하게 고증되지 못하였다. 1996년 6월에야 본격적으로 현장조사가 실시되었다. 처음 확인된 자료는 東岡書의 「白鷺洲」이다. 여름에는 이곳의 수량이 많아서 근접할 수 없는 정도이므로 조사가 쉽지 않았다. 같은 해 겨울, 2차 조사시 「백로주」 주변에서 素洲의 絶句를 발견하였다. 같은 암벽에 여러 쇠구의 자취가 남았으나, 판독하기 어려웠다. 이어 백로주 중앙에 우뚝 솟아 있는 北辰石을 확인하였다. 12자의 암각문 자료가 처음 발견되었으나, 내용의 고증이 여의치 않아 보류되었다. 1997년 1월,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백로주 수면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정황을 쉽게 살필 수 있었으며, 당시 결정적인 자료를 발견하고, 북신석의 암각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신석 맞은편 바위에서 화서학파의 銘文을 발견한 것이다. 12자의 암각문이 화서 문인들에 의해 각자되었으며, 북신석이라는 명칭이 비로소 확인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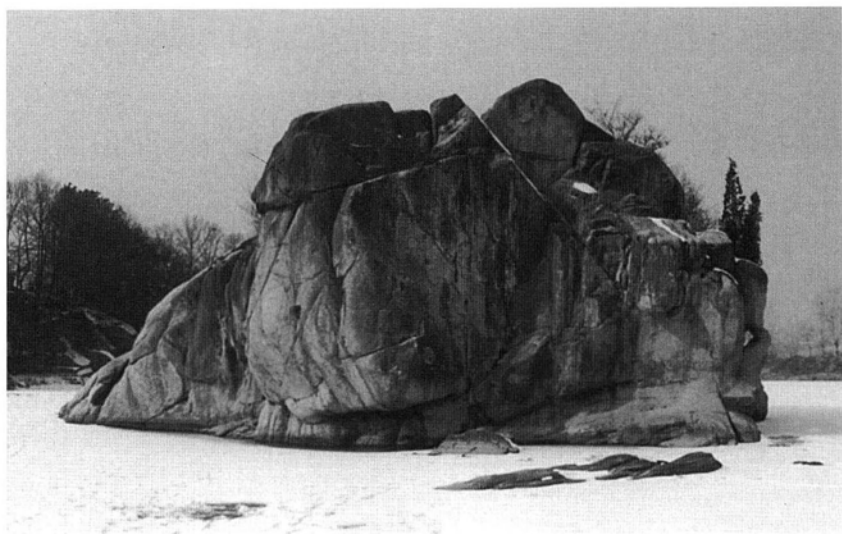
백로주 암각문의 주변 환경

백로주 역시 영평팔경의 하나로 알려진 경승지이다. 백로주는 포천군 영중면 거사리에 있다. 소흘면과 포천읍에서 흘러내린 물이 합류되어 북쪽으로 흐르는 영평천이 작은 언덕에 부딪쳐 북쪽으로 곡수가 된다. 이 곡수머리에 큰 암석이 있으니 바위라기보다는 조그만 바위산이다.

전체가 한 개의 바위로 형상되어 마치 백로가 물 속에 서서 사방을 바라보는 모양이다. 「백로암」이라 불리운 것이 언제부터인지 알 길이 없으나, 『영평읍지』류에 「백로암」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고 있어, 오래 전부터 불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백로암의 이름을 따서 이 일대의 경승지를 총칭하여 「백로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백(李白)의 시구 「二水中分白鷺洲」에서 인용해 이름 지은 것이다. 청류의 영안은 백사가 없는 대신 괴암석이 축대처럼 쌓여져 있어서 마치 운하의 느낌마저 들게 한다. 나루를 띄어놓고 고기잡이도 좋거니와 노를 저어 가노라면 그 무슨 신비의 지역으로나 통하는 수로처럼 낭만적이다.

이 지역은 포천의 명사 양사언(楊士彦)·양만고(楊萬古)·조경(趙綱) 뿐만 아니라, 송시열(宋時烈) 등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배를 타고 즐겨 놀

던 곳이다. 주변에는 경관이 뛰어날 뿐만아니라, 여러 명사들이 남긴 암각문이 산재해 있다. 이곳은 지금도 관광객이 끊이지 않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옛날 선비들이 노닐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최근 백로암 북쪽 하천 부지에 잔디와 수목을 심어 백로주유원지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맞고있다.



▲ 백로주 북신석 전경

백로주 암각문에 관련한 문헌자료

백로주 암각문은 옥병동이나 금수정 지역의 자료처럼 검증할 만한 자료가 마땅치 않다. 『영평읍지』의 누정제영(樓亭題詠)이나, 성해옹의 『동국명산기』 「자연경실장(自然經室藏)」의 다음 기록에서 편린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① 在郡南十里 宋尤菴詩曰 山號白雲洲白鷺 雲如鷺白鷺如雲 須臾雲散鷺飛去 只有沙鷗爲我群 白洲詩曰 身如白鷺洲邊鷺 心似白雲山上雲 孤吟盡日不知返 雲去鷺飛誰與群 趙龍洲詩曰 潭清先受欲生月 松老常浮不盡雲 縱有王維畫不得 君今獨在非人群 楊鑑湖萬古詩曰 東風花落水中石 西日客眠松下雲 醉把一盃酬白鷺 世間誰與作吾群

* 白鷺洲三字 東岡命刻 <永平邑誌, 樓亭題詠>

② 白鷺洲在永平縣南十里大路傍 抱川之水 至萬歲橋與永平錦繡山南之水合而至此 中分數十步 而復合大石盤陀 其間高數十丈 凡三層層 輒有楓松生四面皆澄潭 故取李白詩二水中分白鷺洲之句 名之 今水道屢改二岐 合爲一岐 石上刻尤翁白洲龍洲鑑湖絕句 洲西巖 又刻白鷺洲三字 東崖石壁 亦奇峭 <東

國名山記, 自然經室藏>

①의 기록에서 백로주를 소재로 한 송시열·조경·양만고, 그리고 백주(白洲)라는 호를 가진 문인의 시를 살필 수 있다. 이 싯구가 실제 백로주 주변의 암벽에 각자된 것인가를 수차례 조사하였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각자의 문집에 전하는 시를 『영평읍지』에 전재했을 가능성과 암각된 자료이나, 소실 또는 미발견된 것일 수도 있다.

②의 기록에서 “바위 위에 우암·백주·용주·감호의 절구를 새겼으며, 서쪽 바위에 백로주 세 글자를 새겼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 자료가 암각된 싯구임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싯구는 <자료3;2> 뿐이다.



백로주 암각문의 내용

위의 기록을 중심으로 백로주 주변의 암각문 자료를 지역별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자료3:1〉 백로주(白鷺洲)

<자료3:1>은 철원부사를 지낸 「동강(東岡)」이라는 호를 가진 사람의 글씨이다. 「동강(東岡)」이란 사람이 누구인지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기묘년(己卯年) 가을에 철원부사를 지냈고, 이곳 포천과 관련을 가졌던 묵객(墨客)임에는 틀림이 없다. 「동강」이란 호를 사용한 이가 무려 13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포천과 관련된 이는 김우옹(金宇頤; 1540-1603)과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이다. 이 두 사람의 생존연대 중 기묘년은 1579년 뿐이다. 철원부사라는 직책이 전제되는데, 김우옹이 철원부사를 지



白鷺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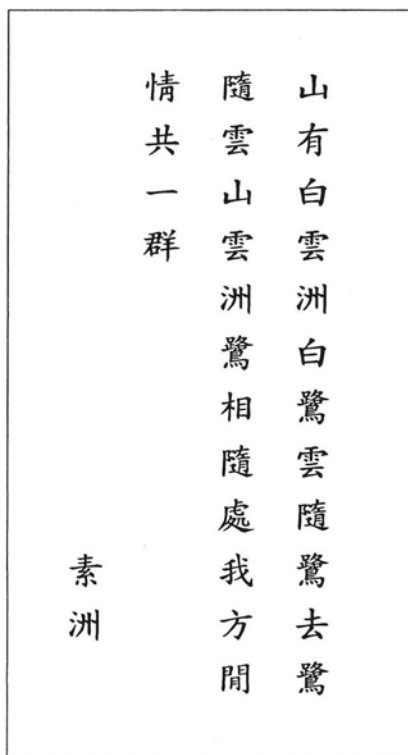
己卯秋鐵原府使東岡書

- * 글씨크기: (大) 40cm × 45cm
(小) 15cm × 13cm
- * 제작연대: 1579년

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어쨌든 이 암각문의 연대는 기묘년(1579; 선조12)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평읍지』에 “「백로주」 세 자는 동강이 명해서 새겼다(白鷺洲三字 東岡命刻)”고 한 것으로 보아, 글씨를 써서 석공에게 명하여 새기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해서체로 힘차고 원숙하게 쓰여진 글씨체가 많은 사람들의 눈을 끌고 있다.

〈자료3:2〉 백로주시(白鷺洲詩)





- * 글씨크기: 6cm×6cm
- * 규 모: 42cm×105cm
- * 제작연대: 조선 선조대

<자료3;2>는 고문헌 기록에서 검토하였듯이 백로주 바위 위에 암각된 우암·백주·용주·감호의 절구를 차운한 것으로 관련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 시를 지은 소주(素洲)라는 호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아 연대 추정이 불가하다. 그러나 17C 후반 무렵에 제작되었음은 가늠할 수 있다. 이 시작품을 번역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山有白雲洲白鷺	산에는 흰구름, 물가엔 백로가 있는데
雲隨鷺去鷺隨雲	구름은 백로 따라, 백로는 구름따라 가네
山雲洲鷺相隨處	산엔 구름, 물가엔 백로가 서로 따르는 곳에
我方閒情共一群	나 또한 한가롭게 한무리가 되었다네.

〈자료3:3〉 북신석 암각문(1); 「萬歲立極 衆星拱之」



▲ 북신석 암각문 탁본광경



萬歲立極
衆星拱之

* 글씨크기: 58cm×104cm

* 규 모: 21cm×2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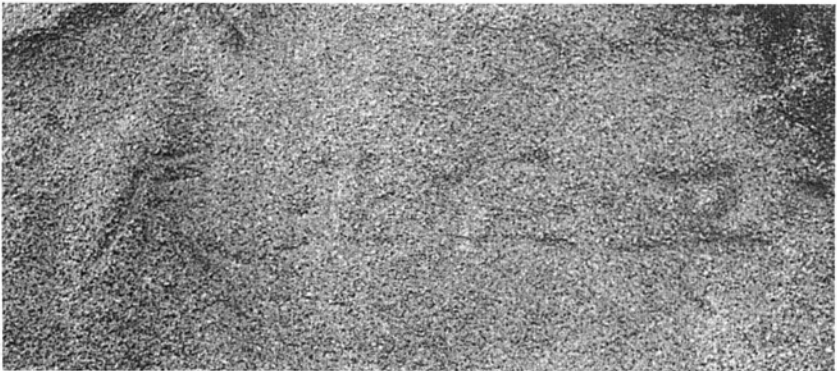
* 제작연대: 조선 말기

<자료3;3>은 백로주의 바위 맨 윗부분에 각자된 것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다. 백로주 주변에 있는 만세교(萬歲橋)와 관련해서 지은 문장으로, 『논어』의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 而衆星拱之.<爲政>”에서 일부를 선취한 것이다. 「萬歲立極 衆星拱之」의 뜻은 “만세토록 북극성

자리에 서시니, 못 별들이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다. 내용으로 보아 관리가 충정을 표하기 위해 각자했을 개연성이 짙다. 백로주 다리 위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게 한 것도 그같은 배려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자료는 연대와 글씨를 쓴 사람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보류해 두었다가 최근에야 새로운 자료 <자료3;5>를 발견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자료는 화서 이항로의 문인인 유기일(柳基一)이 쓰고, 그의 아들 이승웅(李承鷹) 등이 새긴 것이다. 각자한 연대는 화봉산 암각문의 조성 연대와 같은 시기인, 1893년(고종30년)으로 추정된다.

〈자료3:4〉 평양북신(平陽北辰)



辰 北 陽 平

* 규 모: 26cm × 120cm

* 글자크기: 25cm × 25cm

* 제작연대: 조선 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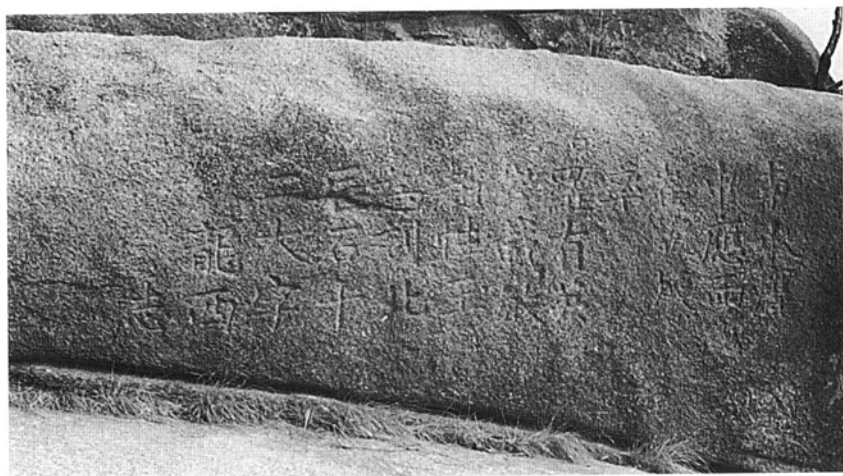
<자료3;4>는 앞에서 살핀 <자료3;3>과 동시에 각자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자료3;3>을 관련해서 후대에 각자했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平陽北辰」에서 「平陽」은 ‘요(堯)임금 시대의 도읍지’를 뜻한다. 곧 태평스러운 세상이라는 뜻을 취한 것이다. 「北辰」은 ‘북극성’을 뜻한다. ‘임금의 자리’가 바로 북쪽에 있으며, 이는 곧 임금을 뜻한다. 결국 “平陽北辰”의 뜻은 “태평스러운 세상의 임금”이라는 뜻이다. 성군(聖君)의 덕화(德化)를 칭송하고 흠모하는 뜻에서 이 암각문을 새겨 놓았던 것 같다.

<자료3;5> 북신석 화서문인대명(北辰石華西門人帶銘)

<자료3;5>는 1997년 1월 19일에 처음으로 확인된 자료이다. 만세교 휴게소를 지나 백로주로 진입하는 길목 우측 도로변에 바위가 있는데, 바로 이 바위 뒷쪽에 이 자료를 각자해 놓았다. <자료3;3> <자료3;4>와 마주보게 새겨 놓았는데, 확인 결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였다. 명칭은 필자가 편의상 지칭한 것이다.



▲ 용서 선생의 암각문이 있는 바위 뒷면



二辰爲趙崔羅率崔申李
龍大石刻世載有 ?應承
志西字十北玉敬英 成雨膺

* 글씨크기: 20cm × 15cm

* 규 모: 215cm × 58cm

* 제작연대: 조선 말기

<자료3;5>는 북신석(北辰石)에 새겨 놓은 12자의 큰 글씨가 용서(龍西)라는 이가 쓴 것임을 기록한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북신석의 암각문은 “이승응(李承膺)·신응우(申應雨)·최?성(崔?成)이 나유영(羅有英)·최재경(崔載敬)·조세옥(趙世玉)을 거느리고 와서 북신석(北辰石)에 12자의 큰 글씨를 새겼으며, 용서(龍西)가 쓴 것이다”라는 사실을 새겨 놓았다.

용서(龍西)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학자 유기일(柳基一)의 호이다. 최익현(崔益鉉)의 문하인 그는 포천지역에서 화서학파(華西學派)의 학통을 잇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다음으로 그가 써 놓았다는 북신석의 12자는 무엇을 지칭하는가. 여러 차례 답사해서 확인한 사실이지만 이는 바로 앞의 <자료3;3> <자료3;4>를 지칭한 것이었다. <자료3;3> 「萬歲立極 衆星拱之」 8자와 <자료3;4> 「平陽北辰」 4자를 합치면 12자가 된다. 이 글씨를 용서 유기일이 쓴 것이며, 이 글씨를 새겨놓은 바위가 북신석이다. 여기서 백로주 중앙에 우뚝 솟은 바위산이 ‘북신석’으로 지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포천의 향토사가들조차 아직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북신석의 암각문 자료도 미완결된 채 남아 있었을 것이다.

백로주 암각문의 사료적 가치

백로주 지역에도 적지 않은 암각문 자료가 산재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발견된 자료는 5건에 지나지 않는다. 고문헌의 기록에서 살필 수 있는 자료도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구체적으로, “바위 위에 우옹(尤翁)·백주(白洲)·용주(龍洲)·감호(鑑湖)의 절구(絶句)를 새겼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장에서 확인된 자료는 소주(素洲)라는 이의 절구 1수 뿐이다. 이 자료 주변에 있음직 하여 수 차례 답사하였으나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만큼 사료적 가치를 판단하기에 미흡하다. 또한 작자와 제작연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제약적이다. 북신석에 각자된 암각문 <자료3;3> <자료3;4>의 경우, <자료3;5>가 발견됨으로써 확인된 셈이다. 북신석의 암각문 12자는 화서학과들의 주자학적 세계관을 시사하는 자료로서 관심을 가질만 하다. 북신석의 암각문은 춘추대의(春秋大義)의 「존왕양이(尊王攘夷)」 사상을 구체적으로 증시하는 자료이다. 화서학과들의 중심 인물인 김평묵·최익현·유기일 등이 포천 사람이요, 이들의 근거지인 포천군에 이같은 자료가 현존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북신석의 암각문은 조선유학사상사의 한 실증적 현장을 보여준다. <자료

3;5>는 화석학과 문인들의 활약을 시사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백로주 지역의 암각문은 지속적인 발굴작업이 필요하다.